

양계산업화를 위한 종계 국산화의 필요성

설 동 섭
(농촌진흥청)

1. 양계규모 확대와 종계공급

한국의 양제도 1960년대 초기에 시작되어 1970년대에 꽃이 피었던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발전되어 닭의 사육수수가 크게 늘어났다.

'60년대 초에는 겨우 1,200만수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농가 총 호수의 절반인 120만 농가에서 몇 마리씩 기르는 부업양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1,000수 이상을 기르는 양계장 수는 겨우 213호로서 이들이 사육하는 닭 수수는 전체의 2.1%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종계가 도입되어 이땅에 뿌리를 내린 1968년도에는 2 배인 2,500만수로 늘어났고, 전기업양계장 당 사육규모도 평균 1,000수에서 2,500수로 커졌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몇차례의 큰 불황을 겪으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급상승하자 양계산물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양계수수가 1977년도 이후 급증하였고 1979년도에는 5,000만수를 돌파하므로써 년말 통계숫자 상으로는 20년전 대비 4 배가 되었지만, 부로 일러 산업에서 년중 수시로 생산하여 육성출하하는 초생추의 물량까지 포함해서 비교해 보면 연간 1억 5,000만수가 넘어 실질적으로는 무려 10 배 이상으로 물량면에서 닭 사육수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1980년에 들어 와서는 전기업양계장 수도 1970년초에 비하여 3 배인 9,214 호로 늘어났고, 이들이 사육하고 있는 수도도 전 수수의 86%를 차지 하므로써 이제는 양계산물의 공급이 완전히 전기업양계장에 의하여 좌우되

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전기업양계농장당 평균 사육규모도 5,000수로 커졌고, 10,000수 이상의 규모도 846호나 되었으며, 이 중에는 10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도 몇개되어, 소위 양계산업의 대형화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가 되었다.

이와같은 양계규모의 확대는 1962년도부터 외국산 종계가 도입되면서 부수적으로 선진국에서 들어 온 양계산업의 현대화 바람이 1970년대 초기의 양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데 기인하고 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몇차례에 걸친 양계의 대불황 속에서 소규모 양계장이 많이 도산되었고, 여기서 살아남은 양계농가들은 1960년대에 비하여 수당 소득이 줄어들어 양계규모 확대에 의한 소득증가 대책이 불가피했으며 종계를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미국, 일본 및 구라파 여러나라의 선진국을 현지시찰할 기회를 가졌던 양계인들이 대규모양계경영에 대한 기술과 경영방법을 보고 온 것이 자극이 되어, 양계인들은 양계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게 되므로써 규모확대의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 양계생산물의 시장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소규모 양계농가의 소량 생산단위로서는 대량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므로써 대도시 수요가 자연히 양산체제를 갖춘 대규모 양계장 또는 대규모 양계단지 육성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외국종계의 수입단위가 대개 대규모 양계장 또는 양계단지의 수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종계장의 경영규모도 P.S종

제라면 최소한 2,000수 이상이어야 영업이 성립된다는 문제점 등이 양계농가의 규모확대를 요구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같이 양계의 경영규모가 양산체제를 향하여 대형화됨에 따라 실용추의 수요단위도 커져서 한 농장당 종전의 몇백수에서 몇천수 및 몇만수를 일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실용계를 생산, 공급하는 종계장 규모도 당연히 커져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실용추의 수요가 계절적인 것으로부터 년중수요로 전환됨에 따라 대단위 연중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종계장 및 부화장 규모도 대형화 되지 않고는 종계수요를 감당해 내지 못하므로 양계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용추 및 종계의 대량수요의 공급을 과연 언제까지 외국수입 종계에만 의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량수요를 공급한다는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큰 종계장이 외국회사와 장기계약을 맺어 외국산 종계의 양산체제를 갖추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종계회사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만 종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의 종계를 일방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처지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히 수입되는 시기와 물량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서 양계산물의 시장수요도 여기에 맞춰져야 하는데 국내시장 수요가 외래종계에 종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산체제를 갖춘 국산종계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15년간의 우리 양계산업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사료공급의 불합리로 불황을 겪었지만, 사료공급 문제가 해결된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계공급의 불합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황을 우리 양계인들이 겪어야 했는가를 생각해보자. 양계 규모가 적고 계절적인 수요에 의존하던 60년대 중기에는 외국종계

의 수요량이 작았기 때문에 알맞은 시기에 필요물량이 수입될 수 있었지만 양계 규모가 커진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요물량이 커지자 수요시기를 맞추어 수입할 수가 없게 되어 외국종계 공급회사의 계획에 예속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국내 시장수요와 마찰되어 양계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양계생산물의 소비신장을 지연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양계산업을 정상화시키고 안정된 양계산물의 공급을 위한 양산체제를 갖추려면 대형화된 양계장 또는 양계단지가 요구하는 실용추를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국산종계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국내시장의 패턴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변할 수 있는 종계기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와 물량에 제약을 받는 외국종계에 의존하는 종계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종계의 국산화를 촉진하여 이런 것이 가능한 국산종계장을 하루 빨리 확보하여야 하겠다.

2. 양계산업 종합체계화의 필요성

앞으로 양계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국내양계의 종계, 사료, 사육, 유통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산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종합체계(Integration System) 도입은 양계산물의 유통개선, 국산종계 산업의 보호, 사육농가의 안정된 소득보장, 사료산업의 안정화 등을 통하여 양계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체계양식은 미국형이나 호주 및 구라파형 또는 이들 혼합형이던 한국 여건에 맞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적어도 종계를 국산화하는 데는 막대한 우량종계 개발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단위의 종계장 영업권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종계의 국산화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산종계 개발을 촉진하

기 위한 외국종계의 제한된 수수 수입은 계속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종계의 개발에는 실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비록 많은 투자를 해서 종계가 개발되었다 해도, 이것이 일반 양계인들이 요구하는 능력과 사육조건에 대한 적응성을 갖춰야 비로소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많은 일종의 투기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계가 개발되기까지는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일단 개발된 종계가 쓸만해서 양계인들에게 인기가 있다면 일정 비율의 영업권을 보호해주어서 계속 그 종계장이 보다 우량한 종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종계를 개발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만수 이상의 종계를 팔 수 있어야 종계장 운영이 된다고 한다.

미국은 세계시장을 상대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러 종계회사가 몰락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도 대부분 대규모의 사료나 곡물상을 운영하는 메이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종계개발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양계생산물의 유통개선을 위시하여 사육농가의 보호, 사료산업 안정화 등에 양계의 종합체제화가 필요한 것이지만 국산화된 종계장을 육성보호하는 대책으로도, 이것은 특히 도입되어야 하는 산업체제이다. 국산화된 종계장을 육성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체제를 갖추게 되면 설사 종계개발사업에서 많은 직자를 보더라도 사료 및 생산물 유통분야에서 얻어지는 이윤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종계 개발사업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종계의 국산화를 위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국산종계를 독점시켜도 좋으나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다. 국산종계 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계속 투자하여 양계농가에 개발된 종계를 염가로 주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국가가 꾸준히

투자할 의사만 있으면 우리 양계인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국산계 개발을 위하여 취할 수 있었던 조치를 보면 4,000여수의 종계를 가지고 10계통이 넘는 것을 유지 하기에 급급한 축산시험장에 대한 극히 미미한 투자와 국립종축장 대전지장에 민간종계장이 이미 갖추고 있는의 국산 G.P.S를 도입하여 P.S를 생산배부하는 일을 시키고 있는 점이라든지 3개의 국산종계장 지원금으로 겨우 1억 원도 안되는 융자금을 책정해서 담보용자를 하는 것 등극히 소극적인 대책밖에 세우지 못했던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책이 국산계 개발에 별다른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거의 20년간 이상 4~5만수의 종계를 가지고 국산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보면 농립 1호, 2호 및 5호 등 비교적 능력이 괜찮은 종계를 육성해내는데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외국종계에 밀려서 보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양계인의 기호에 맞지 않는 점도 있겠지만 외국계로 영업을 하는 민간종계장과 같이 보급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국가기관이 도입할 수 없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세계 여러나라를 보아도 국가기관이 종계소재를 공급하는 데는 기여하고 있어도 국산계 육종에 성공한 예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주도하에 종합체제를 도입하고 여기에 종계국산화를 삽입하는 것이 역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종계개발은 국가가 맡고 이것을 민간종합체제에 바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연결은 운영면에서 마찰을 피할 길이 거의 없는 것이 약점이고, 만약 축협과 같은 국가대행 기관에서 종합체제를 완전히 책임져서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축협이 민간기업처럼 능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연 잘될 것인지 의문

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는 것과 같이 직접 수익을 보는 민간기업이 종계개발에서 이익을 얻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3.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

1980년도에도 외국으로부터 종계가 G. P. S 18,000수, P. S. 125,000수 수입되어, 약 70만불의 외화를 소비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된 G. P. S. 12,000수를 수입에 의존했다면 100만불의 외화가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G. P. S. 를 모두 P. S. 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200만수 수입에 400~500만불의 외화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간 사료도입에 소요되는 4~5억불에 비하면 1%에 불과한 매우 적은 외화이지만 금액의 다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료로부터 종계까지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종계를 국산화하면 종계를 수입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외화절약이 된다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내 양계산업이 종계수입선 국가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계가 육성하는 나라의 사육여건에 맞게 육성되는 것이어서 특수한 처방의 사료와 계사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과거 도입된 종계에서 많았던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조달되는 부원료의 종류와 질이 다르고 물가 억제정책 등의 제약 때문에 사료가격의 자율화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배합사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의 사료사정에 맞지 않는 종계는 점차 퇴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더우기 계사구조도 무창계사와 같은 자동화된 계사를 필요로 하는 종계를 개방계사에 적응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각 종계

회사에서는 광지역 및 다양한 사육조건에 적응하는 종계를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의 여건에 딱 알맞는 닭을 육성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사료 가격이 자유화 된다해도 국내 부존자원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배합사료 여건과 에너지 파동 때문에 선진국마저 완전자동화된 무창계사의 보급을 주춤하고 있는 차제에 국내 개방계사를 일시에 현대화할 수 없는 현재의 사육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한된 조건에서 육성된 국산종계를 보급하지 않고는 국내양계산업의 독자성을 유지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전세계의 종계시장을 점유하여 우수한 종계를 각국에 수출하였다. 소위 미국양계가 세계양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1960년대까지 계속되어 구라파제국이 EEC 협동체를 만들어 미국경제에 대항하게 된 동기를 줄 만큼 병아리 전쟁이 심각하였는데, 구라파 여러나라는 일찍부터 이러한 병아리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과거 25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미국종계에 못지 않는 종계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이제는 미국과 맞서서 세계 각국에 수출할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도 파고들어 갔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곧 우리도 종계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용기를 일으켜 주며, 현재 성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비록 사료곡물을 도입할 지라도 병아리만은 국산화해야 양계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제당국에 구실을 주지 않는다는 데 의의가 더 큰 것이다.

최근에 와서 각종 자원의 국채화는 유류파동 이후 각국의 정치, 경제적 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우리가 노력하면 개발할 수 있는 종계자원도 일단 외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국내 것을 포기하고 만다면 앞으로 기반이 무너진 다음 종계 공급국에서 부리는 횡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

이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종계의 수입가격도 수출국에서 유류처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각종 양계기구, 기계는 물론 심지어 특수한 사료까지 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종계수출을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이지만 과학기술에 의한 새로운 자원개발에 대한 잠재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우수한 두뇌로써 개발가능한 종계육종은 창조자원이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있거나 앞으로 도입될 기초종계로부터 충분히 종계의 국산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국내종계만으로는 전혀 되지 않아서 비록 기형 개발된 외국종계를 도입하여 우리의 여전에 맞게 다시 육종개발한 것이라도 창조된 자원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개 우리나라 양계인들은 이상한 이름이 붙은 외국종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이미 능력면으로 몇개의 외국종계가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름의 종계가 나오면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시험을 해보지도 않고 대량 도입해서 사육하는 습관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면서도 종계의 국산화에 거의 관심을 가질 생각조차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제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였고 앞으로 계속 경제규모가 커져 가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종계를 육성해서 우리의 경제발전에 알맞도록 양계산업을 끌고 나가기에 알맞은 종계를 개발하여 우리의 시장수요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정책적인 지원

종계를 국산화 하는 데는 국가기관, 단체, 민간기업가 중 누가 개발했던 간에 일단능력이 우수한 종계가 개발되어 시장수요에 잘 맞

는다고 하면, 정부가 이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우수한 종계가 국산화되면 이것은 이미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것이 아니고 국가의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국내 시장수요의 물량이 작은만큼 국가가 보호하여 국내시장의 점유율도 종계개발 회사가 유지될 만큼의 수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은 물론,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하여 계속 우수한 종계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계는 국내 보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시장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종계와 비교해서 능력차가 너무 나면 종계국산화가 오히려 능력이 낮은 종계를 양계농가에 보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종계의 국산화는 계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되 국산계의 능력향상을 자극하는 의미에서 또한 외국종계의 개방방향과 양계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한된 개방정책은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산종계를 외국에 수출하여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후진국에 우리의 양계기술을 수출하고 아울러 종계개발사업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명실공히 양계입국으로서 세계속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종계의 국산화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양계산업에 종합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비교적 자본이 빈약한 국내종계 및 사료업자에게는 대단히 벅찬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양계산물의 유통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종계, 사료, 사육, 유통을 계열화하는 것을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어떤 지역의 양계단지과 종계공급회사와 사료회사를 묶어서 계열화하되 유통에 필요한 도계처리장, 계란포장센타 등을 세우는 데 국고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에 필요한 기계, 기구 도입에 면세조치를 하거나 양계단지를 하나의 조합으로 묶



어 공동출하장, 제분의 공동처리장 등을 국고 및 용자지원하는 등 과감한 정부지원이 수반되어야 종합체제화가 촉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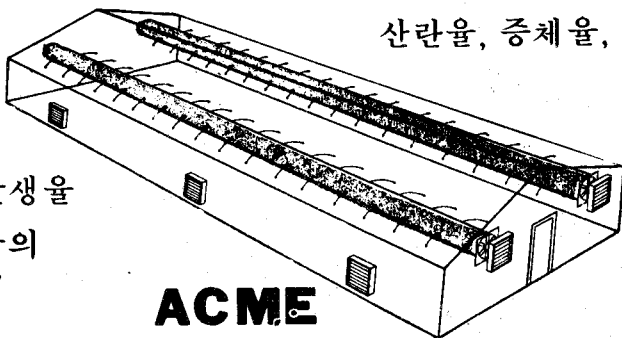
지금까지 국산종계는 대부분 수입종계에 비하여 비위생적인 종계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육종되고 있는 종계에서 생산된 실용계를 사육해 본 양계농가들은 여러가지 질병 때문에 중도에서 사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산계를 애용해 보려고 하던 양계인들도 능력 자체보다 오히려 질병 때문에 수입계를 찾게 된다는 것이 일반 양계인들이 수입계를 애용하게 되는 구실이 되고 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러운 환경에 이미 오염된 종계는 비록 국산계가 아니고 수입계라 해도 질병문제로 발생이 많은데 이것은 종계 사육환경의 조성 및 보호대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깨끗한 국산종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종계보다 더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정부가 세

워 국산종계의 육종장은 종계기치화해서 국가가 이 종계장을 중심으로 한 주위에는 다른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국산종계가 전국에 산재한 양계장에서 사육되는 것이므로 이들 종계의 청결여부가 국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종계의 국산화와 동시에 종계 환경조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외국종계는 G.P.S의 경우 2대, PS는 1대를 이용하는 데 그치므로 청정(淸淨) 종계를 외국에서 계속 도입할 수 있지만 국산종계가 PL단계에서 한번 오염되면 여기서 계대되는 GPS, PS 및 CC는 수직감염 되어서 종계의 국산화가 오히려 양계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아크메의 환경조절 자동시설이란 무엇일까요 ?

산란율, 증체율, 사료효율의 개선!



질병발생율
폐사율의
감소!

ACME

평당사육수

부로일러 : 65수

채란계 : 98수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심한 기후와 심한 더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위와 추위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돈으로 환산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倂 鎮 洋 行
OHJIN CORPORATION

723-4125
723-4128